



# 中央日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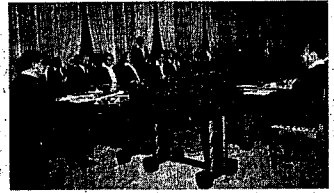
社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11-1호  
전화: 331-1111 (주선)  
331-1112 (편집)  
331-1113 (영업)  
331-1114 (광고)  
331-1115 (보급)  
331-1116 (인쇄)  
331-1117 (배부)  
331-1118 (판매)  
331-1119 (통신)  
331-1120 (사무)  
331-1121 (유선)  
331-1122 (전신)  
331-1123 (우편)  
331-1124 (배달)  
331-1125 (인쇄)  
331-1126 (배부)  
331-1127 (판매)  
331-1128 (통신)  
331-1129 (사무)  
331-1130 (유선)

## 모든專門大學 來週開講

休業令 14일자로 해제  
校別開講日程 文敎部의 휴업令은 12日 밤 11時 30分에 14日자로 해제되어 모든 專門大學은 來週에 開講하게 된다.

## 社會淨化로 신위회복

各部處와 國保委 잔류 혐조트북  
崔大統總理 國保委員의 示지시 各部處와 國保委에 殘留의 혐조트북을 淨化시키도록 命じた。 崔總理은 國保委員의 示지시 各部處와 國保委에 殘留의 혐조트북을 淨化시키도록 命じた。



11日 崔大統總理 國保委員의 示지시 各部處와 國保委에 殘留의 혐조트북을 淨化시키도록 命じた。

## 「肅正」後續人事 내주초에 7·9措置로 行政空白 없도록

次官·廳長 知事等 小權의 用  
政府은 「肅正」後續의 人事를 내주초에 7·9措置로 行政空白 없도록 次官·廳長 知事等 小權의 用을 命じた。

## 公務員

### 「要職」과 「閑職」

일부「자리」昇進속고 權限줄려  
중요한 企劃業務는 人氣낮아  
人事정책 變換中  
「자리」가 문제안되는 風土 가꿔야

Table with 2 columns: Position (要職, 閑職) and Statistics (昇進率, 權限, etc.)

### 세계 2대 北壁이 神國최초로 挑戰

隊員 12명 14일 壯途에  
駐韓軍 現水準 유지  
韓半島軍事均衡 北韓이 유리

### 金利 流動化시켜 貸付기로

政府, 저축은 늘지만 企業 부담 커 物價에 영향  
駐韓美軍 25日 撤兵  
中共관리層 反對 仁해

### 변호사임무개시

변호사 임무 개시  
변호사 임무 개시

## 인양주택

청담2차 한양아파트가 7월14일부터 분양됩니다.

7월12일 모델하우스 공개

총 216세대

18.2

영동대학교의 경기고등학교 중학교 겸, 청담한양아파트 단지내에 있습니다. 전화 52-4994, 5690.

1순위	2순위	3순위
080.4.14.까지 주택청약예금 200만원 이상 예치한 분	080.7.14.까지 주택청약예금 200만원 이상 예치한 분	080.7.14.까지 주택청약예금 100만원 이상 예치한 분

## 세계2대 북벽에 한국최초로 도전 PDF보기

 인쇄  닫기

중앙일보 | 1980-07-11 | A | 판 | 1면 | 사실 |

중앙일보-동양방송과 악우회는 한국등반사상 처음으로 「아이거」 북벽과 함께 세계3대 난벽으로 일컫는 「알프스」의 「그랑조라스」 북벽과 「마테르호른」 북벽에 도전합니다.

「악마의 이빨」로 불릴 만큼 험난한 「그랑조라스」 북벽은 고도의 등반기술을 요구하는 1천8백m(등고)의 얼음에 뒤덮인 수직 화강암벽입니다. 그리고 「마테르호른」 북벽은 무수히 쏟아지는 낙석과 낙빙, 끊임없는 눈사태의 위협에 싸인 1천6백m의 삼각추모양의 거대한 암벽입니다. 이 2개의 북벽은 순간순간 변하는 기상, 험난한 적벽 때문에 등반의 악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세계 산악선진국들조차도 도전하기를 주저하는 곳입니다.

이미 한국극지탐험대를 조직하여 북극의 80도선 진출과 남극탐험의 사전답사를 마친 본사는 79년도 「아이거」 북벽등반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악우명의 심의섭씨를 대장으로 하는 대등반대(총12명)를 조직, 2개월간의 특수훈련을 쌓고 오는 14일 장도에 오른다.

◇대원명단

◇악우회=▲대장 심의섭 ▲부대장 전길남 ▲대원 윤대표 임근성 허욱 임덕용 홍기성 유한규

◇중앙일보·동양방송=▲사진부 차장 김택현 (부대장) ▲소년부차장 이준교 ▲사·교양부PD 김동성 ▲촬영부기자 문상기

## 한국등반대 마테르호른에 오르다 PDF보기

 인쇄  닫기

중앙일보 | 1980-08-04 | A | 판 | 1면 | 사설 | 주원상

【체르마트(스위스)=주원상특파원】 「마테르호른」 북벽(4천4백81m)에 도전한 한국원정대(대장 심의섭·40)가 3일 밤10시(현지시간)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등정에 성공했다.

중앙일보·등양방송후원으로 지난달14일 이곳에 도착한 원정대는 「프랑스」의 「샤모니」를 기점으로 인근의 「몽블랑」 등지에서 빙벽과 고도 순응훈련을 마친 뒤 2일 새벽2시 「마테르호른」 정상공격에 나서 해발3천m의 「페르리」 능선 맞은편에 있는 대 「콜로와르」(수직상태의 바위 계곡)에서 벽에 매달려 하룻밤을 지냈다. 다음날 제1차 정상공격조인 윤대표(28)·유한규(24)·제2차 공격조인 허욱(27)·임덕용(24)·전길남(37)등 5명이 1백m의 거리를 두고 차례로 정상을 향해 바위와 얼음조각이 쉴 사이 없이 굴러 떨어지고 우박이 퍼붓는 악천후를 무릅쓰고 17시간의 악전고투 끝에 정상에 올라섰다.

「마테르호른」은 정4각추의 모양을 가진 거대한 악봉으로 그 북벽은 1천8백m의 직벽으로 이루어져 공포의 암벽으로 불려진다.

이번 한국원정대의 주축인 악우회는 79년10월 「알프스」 3대 북벽 중 가장 난 「코스」로 알려진 「아이거」(3천9백70m)등정에도 성공한바 있으며 8월7,8일로 예정된 「그랑·조라스」에 오를 경우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3대북벽을 모두 등정하게 된다.

「마테르호른」 정상은 1865년 영국의 「에드워드·윌퍼」가 일반 「루트」를 통해, 1935년에는 서독의 「슈미트」 형제가 북벽으로 처음 올랐었다.